

양봉협-농진청 힘을 모아 1조 시장 달성해야

8월 26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정기 간담회 개최 양봉농가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연구 시행 요청

한국양봉협회 임원과 농촌진흥청과의 '양봉농업 인단체 정기 간담회'가 지난 8월 26일 11시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농진청과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가 하는 일과 협회에서 농진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정향영 농업생물부장은 “농진청 조직개편으로 농진청이 어떠한 연구를 하는지 알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양봉산업은 많은 산물이 있어 발전가능성이 큰 만큼 농진청과 힘을 합해서 노력하면 양봉산업 1조 시장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경수 양봉협회장은 “한국양봉협회가 품목단체 중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1조 시장이 육성되어야 하고 벌꿀 이외에 화분매개의 공익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농진청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경수 회장은 “농진청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양봉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적은 것 같다”며 “우리 회원들이 농진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잘 알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홍보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내년에 농림부와 함께 교육시설을 마련키로 했으며 다양한 연구결과의 적용으로 궁극적으로는 양봉산물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한 협회 임원진은 농진청에 우수한 종봉개량을 요청했으며, 과수 농가의 농약살포에 따른 벌 피해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연구가 이뤄지길 부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진청 소개 동영상 시청과 이광길 잠사양봉소재과 과장의 '녹생성장 R&D 선진화 방안보고' 등이 진행됐다. **양봉**